

5개 제지업체 부당 공정행위 시정조치

한솔제지(주), 신무림제지(주), 한국제지(주), 신호제지(주), 계성제지(주) 등 5개 제지업체가 인쇄용지(백상지 및 아트지) 가격 담합 인상에 따른 부당 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억4천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구랍 15일, 5개 제지사업자가 제지의 원료인 펄프의 국제가격이 인상하는 것을 계기로 서로 합의하여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 인상한 것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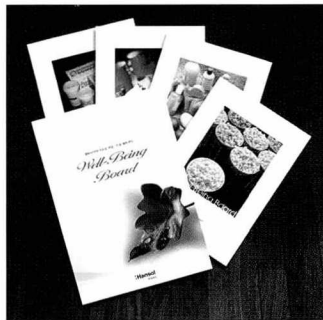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 5개 업체들은 2003년 10월부터 인쇄용지 가격을 품목별로 3%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고 2004년 5월부터 인쇄용지를 품목별로 6~8%씩 다시 인상하기로 하고 자사의 대리점 등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며 “이로 인해 인쇄용지 가격이 품목별로 최저 1%에서 최고 11% 정도 인상됐다”고 밝혔다. 부과된 과징금은 한솔제지(주) 11억3800만원, 신무림제지(주) 11억2800만원, 한국제지(주) 7억9500만원, 신호제지(주) 9억3100만원, 계성제지(주) 4800만원이다.

한솔제지 2005년도 시무식 가져



한솔제지는 지난 1월3일 오전 9시 본사 16층에서 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2004년 한해동안 많은 공로와 타인의 모범이 된 직원들에 대한 한솔상 및 대표이사 표창 시상식도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기술연구소 정종국 사원 외 2명이 한솔상을 받았으며 자금팀 최승룡 과장 외 37명은 각 부문별 대표이사 표창을 수여했다. 한솔제지 측은 시상식과 관련 “심화된 경쟁 여건 속에서도 공장별로 품질과 원가절감, 매출증대, 기술개선 등의 부문에서 뛰어난 실적을 올린 직원들에게 한솔상과 대표이사 표창이 수여돼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한솔제지 최고급 웰빙보드지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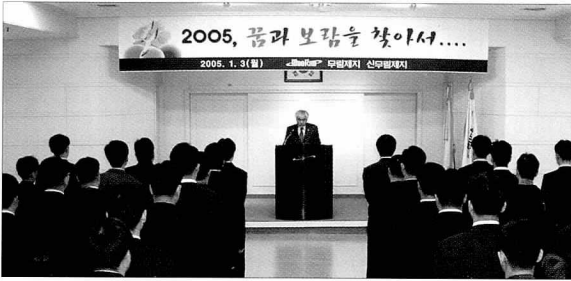
한솔제지는 지난 1월5일,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입증된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FDA)으로부터 식품 안정성을 승인 받은 ‘웰빙(well-being)보드’를 출시

했다. 물론 웰빙보드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의 모든 품질 검사도 통과했다. 100% 펄프로 제작, 형광물질이 전혀 없고 증발잔유물 수치도 획기적으로 낮춘 친환경 제품인 웰빙보드는 아트지처럼 섬세한 인쇄가 가능하면서도 판지 특유의 강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 고급 포장재인 화장품, 의약품 용기, 각종 카드용지 등에 사용, 기존 제품보다 고급 이미지화에 적합하며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유아용 교재, 장난감 등에도 다양도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한솔제지는 이번 웰빙보드 출시를 계기로 친환경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한솔제지 SCM컨퍼런스서 주제발표

한솔제지는 지난 1월17일과 18일 양일간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된 SCM(Supply Chain Management) 컨퍼런스에 참가, ‘물류프로세스 통합을 위한 영업경쟁력’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 컨퍼런스는 1983년 영국에서 설립, 세계 30개의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 인텔리전트 회사인 Marcusevans가 주최한 것으로 한솔제지를 비롯한 국내 3개 업체, 미쯔비시를 비롯한 해외 9개 업체의 성공 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솔제지 마케팅본부 김철환 영업지원팀장은 “한솔제지는 2001년말부터 ISP(정보화추진전략계획)를 수립하고 PI(공정혁신) 과정을 거쳐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인 ERP를 구축하였다”며 “이를 기반으로 고객중심의 쉬운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예약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생산계획(HERO)/납기약속(ATP)공장공정관리시스템(MES)/CSN출하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원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측을 통한 생산, 판매를 가능케 함으로써 내수 및 수출고객에게 정확한 납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무림제지 2005년 시무식 개최



무림제지와 신무림제지는 지난 1월3일 본사 Refreshroom에서 전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2005년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김인중 사장은 “지난해 유가를 비롯한 부재료의 가격파동과 환율파동 등 대외적인 문제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부끄럽지 않은 경영성과를 이뤄낸 임직원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한다”며 “올해는 달러화의 지속적인 약세로 수출채산성의 악화와 내수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전반적인 영업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성공적으로 넘었던 만큼 전 임직원이 단결된 모습으로 올해의 경영방향을 고객지향 경영, 효율중심 경영, 성장기반 강화로 잡고 힘차게 도전하자”고 강조했다.

신무림제지 PI Master Plan 출범식

신무림제지는 지난 1월17일 본사 Refreshroom에서 PI Master Plan 출범식을 갖고 2006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업무 효율화와 선진화된 운영시스템, 위기관리 능력 고취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새로운 목표 아래 가치 창출을 위한 최상의 업무 프로세스 상태를 만드는 전사적 경영혁신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김인중 사장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PI추진은 비단 담당부서만의 일이 아닌 전사, 전부문이 함께 진행할 사명으로 임직원 개개인의 마인드 혁신 없이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후 “프로세스와 제도를 바꾸는 혁신의 주체는 바로 우리를 자신임을 인지해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받아들여 이익이 나는 회사, 경쟁력 있는 회사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PI 마스터 플랜은 외부 전문 컨설팅 회사인 IBM-BCS의 체계적인 변화관리 컨설팅을 도입해 향후 12주에 걸쳐 PI 프로젝트의 세부일정을 수립하게 된다.

신무림제지 2005년 매출 4500억 목표

신무림제지는 지난 1월14일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올해 사업목표를 매출 4500억원, 영업이익 400억원, 판매량 49만톤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 5%, 판매량 6% 증가로 올해 불투명한 국내 경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성장곡선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표명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무림제지는 환율불안과 미국 통상압력 등 수출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맞춘다는 영업전략 아래 해외시장 공략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달러 약세로 인해 미주보다 유럽지역을 적극 공략키로 했으며 지난해 개설한 영국의 현지법인 무림 UK의 본격적인 영업을 통해 지난해 2만5천톤 규모에서 60% 증가한 4만톤으로 늘려 잡는다는 전략으로 유럽은 양을 늘리고, 미주는 판매가격을 올려 줄어든 양을 가격으로 보전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오일달러 강세인 중동시장을 공략, 월 1500톤 규모를 올해부터는 3500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의 설비투자를 4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잡고 진주공장 1,2호기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1999년 완공한 3호기도 크게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45만톤 생산 체제를 50만톤 규모로 올려, 단일공장으로는 최대 생산 체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삼원특수지 해외 아티스트 초대전

(주)삼원특수지가 오는 2월26일까지 삼원페이퍼갤러리에서 '2005 해외아티스트 초대전 I'을 개최한다. 아조 위긴스의 협찬으로 지난 1월4일부터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심볼화의 힘(Power of Symbolization)'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세계적인 그래픽디자이너 히로미 이나요시의 그래픽 디자인 작품들이 소개됐다. 또한 2월 26일에는 1차(오후1시:디자인 전공 학생 대상)와 2차(오후4시:전문가 대상)에 걸쳐 작가의 디자인과 작품 세계에 관한 자유 토론회가 이어졌다.

한편, 작가 히로미 이나요시는 현 Super Graphic New York Co., Ltd의 대표이자 CI 르네상스 위원회 회장, NGO Kiara No Kal 부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뉴욕ADC어워드 광고 포스터 부문에서 금상을 2회 수상한 바 있으며 도쿄ADC어워드, Warsaw, Lahti포스터비엔날레, 브루노디자인비엔날레 등 각종대회 수상경력이 많다.

〈조갑준 차장〉